"여수 엑스포 성공, 여당이 전폭적 지원"

■어제 여수 온 한나라당 민생팀

"세계적 관광 메카 개발·광양~남해간 대교 필요"

이상득, 김형오, 윤두환, 여상규, 이정현 의원 등 한나라당 민생현장실태파악 수산팀이 25일 2012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여수시를 방문했다.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이들은 세계박람회 준비현장과 남면 양식장 등을 둘러본 뒤 수산인과 어업인, 상공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 등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상득 의원은 이날 오전 여수박람회 홍보관을 들러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 여수발전을 빕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적은 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수처럼 아름다운 곳은 많지 않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여수를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여수박람회장과 그 주변을 잘 해놓으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박람회 이후 (여수가) 관광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다가 아름다운 목포와 고흥, 남해 등 남해안 일대를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해와 광양을 잇는 대교 건설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영·호남 간 화합이 이뤄질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호남출신인 이정현 의원은 "해안을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섬 등을 개발하면서 자칫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해양관광과 해양과학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수지역 수산·어업인과 시민대표,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민생현안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3시께 또 다른 지역 민생 파악을 위해 경남 하동으로 떠났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5일 여수를 방문한 한나라당 민생탐방팀이 오동도 인근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이상득 의원(맨 왼쪽)과 김형오 의원(맨 오른쪽)이 박람회장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개혁 블록' 전대 변수되나

"추미애 지지" 표명…정세균측 "대세 지장 없다"

통합민주당 내부의 '개혁 성향' 인사들이 '개혁 블록'을 구축, 추미애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어서 당 대표 경선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표 경선이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천정배 의원을 주축으로 한 민생모임 출신과 재야파로 이뤄진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 인사 등 20여명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현 구도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선명한 야성(野性)을 회복해야 한다"며 추미애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역학 구도가 정세균 후보로 대표되는 신(新) 주류파에 쏠리고 있는데 맞서 추미애 후보 지지 성향을 보이면서 신 주류 측과의 확실한 전선을 형성, 개혁그룹의 근거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이들은 대표 후보로 추 후보, 최고위원 후보로는 문병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에서 열세인 추 후보 측은 개혁 그룹의 지원사격으로 바닥표심을 흔드는 데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측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 대표 경선이 '개혁 대 비(非)개혁', '변화 대 안정'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정 후보 측은 전대 대의원의 30%를 확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구 민주계와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남 허물은 들춰내고 자기 허물은 모른 척

광주시 공무원노조 '제편 들기' 성명서 빈축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시청 공무원 관련된 문제는 감추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김남일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광주시의회는 윤리강령 실천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또 "김의원이 공무원 로비 자금 명분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5일 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6일에는 광주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항의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날 성명서 중에는 사건에 연루된 시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복지법인 설립인가 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을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데 대해서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도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밝혀져야 함'이라고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김지을기자 dok2000@

"인사 개입? 어린애 같은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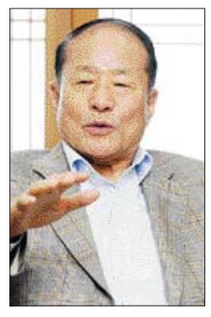
여수 온 이상득 의원

한나라당 민생탐방팀의 일원으로 25일 여수를 방문한 이상득 의원은 남면지역 어민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여수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개입설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처음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해 나갔다.

이 의원은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작심한 듯 격정적인 어조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말 무섭더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폄하했다는 구설부터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 '집회참가자들 사이엔 실직자도, 영세사업자도 있을 것이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어떤 해명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청와대·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4년간 각종 인사와 건축허가 민원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에 당선한 이 후 에 는 '진짜 형제 맞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통령과) 일절 관계를 끊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도 (내가)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애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2선 퇴진론'에 대해서는 "포항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을 누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냐"며 목청을 높였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추가협상은 기대이상으로 잘한 것"이라며 "국가간 협상에서 추가협상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양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인문학으로 크는 아이들

김미은
문화부 차장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인 부산의 '인디고 서원'을 알게 된 건 2005년 발간된 '주제와 변주'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장영희·진중권·최재천·도정일·강수돌·한홍구 씨 등 내로라하는 인문학자들이 자신의 책을 읽은 청소년들과의 토론을 위해 찾은 지방의 작은 서점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서원에서 활동하는 '인디고 아이들'이 저자들과의 세미나 내용을 담아 펴낸 '주제와 변주'를 처음 접했을 땐 참가자들의 화려한 면면에 놀랐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아이들이 나눈 치열한 토론을 '그대로' 옮긴 책을 읽고 난 후엔 왜 그들이 앞다퉈 부산으로 달려갔는지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글을 통해 아름다운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젊은 영혼들을 만나주셨으면 한다'는 진심 어린 편지를 받고 아이들과 토론에 나선 저자들은 이곳에서 인문학의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 희망의 씨를 뿌린 이들이 중·고생이라는 사실에 행복해했다.

최근 취재 차 인디고 서원을 방문했을 때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참고서를 팔지 않지만 아이들로 북적거리고, 언제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현장.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삼복서점 본점이 경영난 끝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접한 터라 부러움은 더했다.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 32번째 '주제와 변주' 현장은 이 행사가 부산 청소년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보여줬다. 가족 참가자가 눈에 많이 띄었고, 타 지역 참여자도 많았다. 대구에서 혼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박영하양은 "대구에도 책을 읽고 저자와 토론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연방 부산 아이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반갑게도 최근 광주엔 청소년 인문학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예술의 거리 '뜰방'에 자리한 북카페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인디고 서원 등을 방문, 아이디어를 모아 마련한 공간이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읽을 수 있도록 500여권의 책을 갖춰 놓았고 토요일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도 연다. 아이들은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며 인디고 서원에도 다녀갔던 전남대 김상봉 교수 등은 특강자로 나섰다.

북카페는 이제 첫 걸음마를 뗐다. 이 공간을 아이들의 생각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 생각을 서로 나누며 세상 보는 눈을 키워가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작은 출발이 될 수 있겠다. '주제와 변주 1, 2'는 인문학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물론 '미학 오디세이' '학벌사회' 등 토론의 주제가 된 텍스트를 먼저 읽는 게 순서지만 책을 읽은 후 마음이 당기는 책을 꺼내들어도 무방하다. /mekim@kwangju.co.kr